

## 한국 남성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및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 명 소<sup>†</sup>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이 은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65세에 해당하는 성인 남자 727명을 대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력, 결혼관계, 직업 및 소득수준에 따라 페미니즘 성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페미니즘 척도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역할과 여성활동의 목적은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학생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차별과 경시 및 집합적 행동, 자매애는 연령이 높거나 미혼이고 수입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은 남성들의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역할과 여성 활동 목적,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차별과 경시는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합적 행동은 심리적 안녕감에만, 자매애는 주관적 안녕감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을 한국여성들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삶의 질 연구(2006)와 비교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유주의 페미니즘,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70019).

† 교신저자 : 김명소,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E-mail : mskim@hoseo.edu, Tel : 041-560-8372

여성부 존폐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결국 주요업무인 가족정책 정책기능을 타부서로 이관하고 성차별 철폐, 여성인력 개발과 양성평등 관련 권익증진 업무만을 남긴 초미니 부서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부서로의 존치 결정이후에도 계속되는 논란을 비켜나지 못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주창해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새삼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사회 각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여권주의자)’에 대한 비판들을 접하면서 과연 그들이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들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페미니즘을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적 공론으로, 혹은 사회악의 하나로까지 보는 이들은 자신의 성을 사회화된 성(젠더)의 관점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일부 여성들과 페미니즘에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포함되어 있다(Edley & Wetherell, 2001).

페미니스트들은 인류 사회가 역사 발전 이래 남성 중심적으로, 남성의 관점에서 발달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의 소리와 경험은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음을 주장해 왔다. 또한,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렇다면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여성의 삶을 중심화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은 남성들에게는 피해의식과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인가?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어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는 시도

들이 남성들에게 위협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단지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젠더)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삶 속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남성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페미니즘은 여성이 처한 불공평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불합리하고 여성에게 편파적인 부분을 찾아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또한 생물학적인 성(性)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부정하며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불평등하게 부여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여성운동인 것이다(한국여성연구소, 2003).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189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나 관점, 세계관이나 이념이기도 한 페미니즘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입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장하고 사회운동을 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페미니즘이론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자유주의, 급진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로 구분되어 왔던 페미니즘은 이후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각이 추가되어왔다. 여성 억압의 요인을 구조적 접근보다는 개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서 찾으려 했던 정신분석적 페미니즘, 여성억압의 요인을 다양하게 보며, 여성이 갖는 보편적 특성은 없으며, 지위 경제조건, 정치상황, 문화 이데올로기 등의 맥락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본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이정희, 2004; 한국여성연구회, 2003).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를 주창하면서, 남성의 노동력만을 공적인 공간에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에게는 생산 활동보다 육아가 포함된 가사노동만 전담하도록 강요되어지면서 주어진 성역할에 따라 남자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분리되었다. 계층에 따라 일부 여성들은 어떠한 노동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18세기 부르주아 여성들이 있어서 여성의 행복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가부장적 사회의 요구와 훈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성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줄 것을 주장하였다(Groenhout, 2002).

이후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남성에게 주어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경제적 기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원을 가진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주류 페미니즘으로도 알려져 왔으며, 정치적 법적인 개선을 통해 남녀평등을 주장해 왔다. 이는 개인주의적인 형식을 취하며 여성들이 스스로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평등을 추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어왔다. 남녀 간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사회를 양성에게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사회구조의 변혁 없이도 여성의 능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재생산과 낙태권리, 성희롱, 투표권, 교육, 동등한 보수, 접근 가능한 보육시설과 의료보험, 성과 가정폭력 등이었다(Hooks, 1984). 이와 같이 여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온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남성들에게도 거부감이 적고 이해하기가 가장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남성들의 페미니즘 성향조사도구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선택하였다. 이는 김명소와 한영석 및 이현주(2006)의 여성 연구에서도 사용되어 남녀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양성 평등적 태도와 가치를 의미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는 사회구현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이라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연구는 정의나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Szalai(1980)의 주장에 근거하여 삶의 질은 개인이 여러 가지 생활측면에서 느끼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은 건강상태, 자기 직업에서의 만족과 불만족, 경제상의 문제,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 자녀 및 친척간의 화목한 관계나 갈등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업상의 문제나 일반적 정치적 상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이명신, 이훈구, 1997).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질이라는 두 개념이 유사한 속성을 가지기는 하나 삶의 질이 객관적인 사회적인 지표들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4),

객관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사회지표 연구들은 삶의 질 비교를 위한 객관적 준거들을 개발하였고 이는 국가 간, 지역 간, 분야별 비교 등을 용이하게 주었다(이현송, 1997). 이후 연구들에서 객관적인 지표 외에 주관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이 제시되었고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측정하였을 때 주관적 삶의 질이 더 잘 측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drews & McKennell, 1980; Diener, 1994). 또한 감정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독립적이며 서로 다른 요소들과 상관이 됨을 밝혀 주관적 안녕감에 삶의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을 포함하는 정서적 안녕감을 주요 구성 요인으로 추가하였다(Andrews & Withey, 1976; Bradburn, 1969, Watson & Tellegen, 1985).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앞선 연구들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 부족을 비판한 이들(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Ryff(1989)는 주관적 안녕감보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임상, 상담, 발달 심리학 등에서의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그리고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과 같은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었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동시에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명소 등(2003)의 전국단위의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좋은, 바람직한 삶의 요소들이 경험적으로 탐색되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Ryff(1989)가 제안

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6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며 총 16개 요인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진 행복척도가 제작되고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페미니즘과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양성평등과 연관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한국형 평등의식 검사(김양희, 정경아, 2000) 개발 이후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대한 영향원을 찾는 연구들은 주로 여대생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김금미, 한영석, 2002; 2003),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논의하고 있다(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여성들이 긍정적 정체성을 얻기 위해 사회적 경쟁 전략의 일환으로 남녀평등 추구 행동을 보이는 반면(Taifel & Turner, 1986), 남성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에 남녀평등의식이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존감은 남녀평등의식을 고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자존감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가치 있고 공헌도가 크고 유능한 구성원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에서 오는 특별 의식을 줄여주는 것이 남녀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적 의식과 가치를 포함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척도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광의의 페미니즘 의식이 남성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이는 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페미니

즘 성향이라는 새로운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에 관한 상관연구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은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고안하였다.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질적 연구들에서 페미니즘은 남성들에게도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어머니, 아내)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갖게 하는 기능을 했으며, 개인적인 환경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2006). 제도나 법적인 성차별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감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대중적인 의식개혁운동의 확산에 공헌해온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별을 구별하기보다 성별에 중립적인 인본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도 고정화된 성역할에 의한 불공평한 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억압의 현실 인지와 개선에 조력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과의 조화로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페미니즘 성향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봄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으로의 의식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통계에 따라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5세 성인 남성 727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 전체   |            | 727    |        |
|------|------------|--------|--------|
| 연령   | 20-29세     | 146    | (20.1) |
|      | 30-39세     | 164    | (22.6) |
|      | 40대 이상     | 416    | (57.2) |
| 결혼상태 | 미혼         | 170    | (23.4) |
|      | 기혼, 동거     | 547    | (75.2) |
| 학력   | 이혼, 별거, 사별 | 10     | ( 1.4) |
|      | 고졸이하       | 297    | (40.9) |
| 거주지역 | 대졸이상       | 430    | (59.1) |
|      | 서울         | 373    | (51.3) |
| 직업   | 인천         | 75     | (10.3) |
|      | 부산         | 111    | (15.3) |
|      | 대구         | 105    | (14.4) |
|      | 광주         | 38     | ( 5.2) |
|      | 대전         | 40     | ( 5.5) |
|      | 춘천         | 15     | ( 2.1) |
|      | 학생         | 70     | ( 9.6) |
|      | 자영업        | 231    | (31.8) |
| 직업   | 영업직        | 52     | ( 7.2) |
|      | 사무직        | 152    | (20.9) |
|      | 생산직        | 50     | ( 6.9) |
|      | 전문직        | 22     | ( 3.0) |
|      | 공무원        | 46     | ( 6.3) |
| 기타   | 104        | (14.3) |        |

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고, 자유주의 페미니즘 척도에는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6: 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들 조사대상자 727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었다.

### 측정 도구

#### 자유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태도와 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Morgan(1996)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태도와 이데올로기 척도(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Scale; LFAIS)'를 사용하였다. LFAIS는 3개의 상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적절한 역할 지각에 초점을 둔 '성역할(Gender Roles)' 요인( $n=6$ ,  $\alpha=.60$ )이며,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측정하는 '페미니즘 목적(Goals of Feminism)' 요인이며, 세 번째는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Feminist Ideology) 요인이다.

하위척도들을 살펴보면, 두 번째 페미니즘 목적 요인은 다시 '여성 활동의 포괄적 목적(Global Goals)'( $n=9$ ,  $\alpha=.83$ )과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Specific Political Agendas)'( $n=16$ ,  $\alpha=.78$ )으로 나뉘어진다. 세 번째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 요인은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뉘는데 먼저 '차별과 경시(Discrimination and Subordination)' 요인( $n=8$ ,  $\alpha=.73$ )은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음에 대한 동의를 묻

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 요인( $n=7$ ,  $\alpha=.61$ )의 경우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집단행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자매애(The Sisterhood)' 요인( $n=7$ ,  $\alpha=.61$ )은 원 척도에서는 여성들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성을 스스로 지각하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자매애 요인 문항 중 남성에게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일부문항들을 제외하고 5문항만 실시되었다. 제외된 문항들은 '이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의 여성들도 삶에서 겪는 일이다'와 '강간당한 여성에 대해서 들을 때 나는 "그게 나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등이다. 실시된 문항들은 여성들 간의 동지적 애정을 가지거나 서로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총 65문항이 실시되었다.

####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 (198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율성,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등 총 6개 하위 요인,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lpha=.62\sim.86$ ). 각 요인에는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자율성),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환경 지배력),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자신에 대해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다.'(개인적 성

장), ‘나는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삶의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인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긍정적 대인관계),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자아수용)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1984)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삶에 대한 만족, 부적 정서, 긍정적 정서의 3개 하위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alpha=.87\sim.62$ ). ‘삶에 대한 만족’ 요인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조건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 왔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의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 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정서(부적정서, 긍정적 정서)’ 요인을 측정

하는 문항은 ‘공포’, ‘슬픔’, ‘애정’, ‘죄의식’, ‘화남’, ‘만족감’, ‘기쁨’, ‘자부심’ 등의 정서를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느꼈었는지를 7점 척도(‘1:전혀 느끼지 않았다.’ ~ ‘7:매우 자주 느꼈다.’)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서의 차이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 변량분석,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은 SAS windows용 8.01를 이용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페미니즘 차이**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학력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 2. 학력에 따른 페미니즘 성향 차이분석 결과

|             |             | 고졸이하(N=297) 대졸이상(N=430) |           | t        |
|-------------|-------------|-------------------------|-----------|----------|
|             |             | M(SD)                   | M(SD)     | 남        |
| 성역할         | 성역할         | 3.58(.54)               | 3.74(.56) | -3.81*** |
| 양성동등        | 여성활동 목적     | 4.11(.61)               | 4.24(.62) | -2.72**  |
| 사회추구        |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 3.77(.52)               | 3.82(.51) | -1.24    |
|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 | 차별과 경시      | 3.84(.56)               | 3.85(.55) | -0.38    |
|             | 집합적 행동      | 3.71(.47)               | 3.73(.47) | -0.74    |
|             | 자매애         | 3.89(.23)               | 3.82(.24) | 3.77***  |
| 전체          |             | 3.82(.32)               | 3.87(.32) | -2.13*   |

주. \* p<.05 \*\* p<.01 \*\*\* p<.001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에 비해 페미니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성역할과 여성 활동 목적에서만 고졸보다 대졸이상의 남성들이 더 높은 평균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조적으로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자매애에서는 고졸이하의 남성이 대졸이상의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차별과 경시 및 집합적 행동에서는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남녀 평등적 시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사회 내에서 여성에 대한 존중, 권리, 기회에 대한 공정성을 바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들간의 자매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내지 수용정도를 묻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졸이하의 남성들이 더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라는 다른 성이 처한 입장에 대한 수용은 교육 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들과 상관되어, 평등적

성역할이나 여성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동등성을 교육받는 제도권 내 기회이외에 다른 내용과 양식의 페미니즘 이해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연령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표 3), 전체적으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요인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보였다. 성역할 하위 척도에서는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 속할수록 강한 페미니즘 경향을 보였으며, 차별과 경시 및 집합적 행동과 자매애는 20대에 비해 30-40대가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20대 남성의 경우,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이 많은 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학교라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성 평등적 기회에 대한 노출 경험이 많았던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20대는 3,40대에 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남녀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으로

표 3. 연령에 따른 페미니즘 비교(남)

|                |                | ① 20대(N=146) | ② 30대(N=164) | ③ 40대 이상N=416) | F        | Tukey   |
|----------------|----------------|--------------|--------------|----------------|----------|---------|
|                |                | M(SD)        | M(SD)        | M(SD)          |          |         |
| 성역할            | 성역할            | 3.92(.62)    | 3.70(.55)    | 3.58(.50)      | 22.7***  | 1 >2 >3 |
| 양성동등<br>사회추구   | 여성활동 목적        | 4.27(.70)    | 4.20(.55)    | 4.15(.62)      | 2.29     |         |
|                | 세부적인<br>정치적 협약 | 3.84(.55)    | 3.79(.45)    | 3.80(.53)      | .49      |         |
| 페미니스트<br>이데올로기 | 차별과 경시         | 3.76(.60)    | 3.84(.49)    | 3.89(.56)      | 3.04*    | 3>1     |
|                | 집합적 행동         | 3.50(.44)    | 3.78(.47)    | 3.78(.46)      | 22.06*** | 2, 3>1  |
|                | 자매애            | 3.76(.29)    | 3.84(.20)    | 3.87(.23)      | 11.6***  | 2, 3>1  |
| 전체             |                | 3.84(.34)    | 3.86(.31)    | 3.84(.32)      | .16      |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평등의식이 고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와 40대의 경우, 20대 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에서 남녀 간 경쟁에서 여성이 성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많이 목격한 결과, 남녀차별을 해소할 위한 집단행동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혼여부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표 4), 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의 집단 간에 전체평균점수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요인에서는 성역할, 차별과 경시, 집합적 행동이나 자매애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에는 기혼집단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페미니즘 경향이 높았고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의 하위척도들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기혼 집단은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미혼집단에 비해 더 높은 페미니즘 성향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를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여성 활동의 목적 및 세부적 정치적 규약에 관한 페미니즘 성향은 결혼관계와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과 연령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결지어볼 수 있다. 미혼 집단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과 학교에서의 평등경험과 교육을 통해 기혼 및 이혼-별거-사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적절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 성역할 지각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집단과 이혼-별거-사별집단의 경우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경험 속에 직접적인 성차별을 목격하거나 여성인 가족과 동료들이 겪는 사회적 제약을 인식하면서, 차별과 경시의 현실을 인정하며 직접적인 단체 행동을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구현과 자매애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동감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

직업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

표 4. 결혼 관계에 따른 비교

|                |                | ① 미혼(N=170) | ② 기혼(N=547) | ③ 이혼/별거/사별(N=10) | F        | Tukey |
|----------------|----------------|-------------|-------------|------------------|----------|-------|
|                |                | M(SD)       | M(SD)       | M(SD)            |          |       |
| 성역할            | 성역할            | 3.85(.65)   | 3.62(.51)   | 3.50(.58)        | 12.44*** | 1>2   |
| 양성동등<br>사회추구   | 여성활동 목적        | 4.28(.65)   | 4.15(.61)   | 4.21(.39)        | 2.71     |       |
|                | 세부적인<br>정치적 협약 | 3.84(.53)   | 3.79(.51)   | 3.92(.45)        | 1.02     |       |
| 페미니스트<br>이데올로기 | 차별과 경시         | 3.74(.56)   | 3.88(.54)   | 4.00(.61)        | 4.17*    | 2>1   |
|                | 집합적 행동         | 3.54(.48)   | 3.77(.45)   | 3.94(.60)        | 17.62*** | 2.3>1 |
|                | 자매애            | 3.78(.29)   | 3.86(.22)   | 4.04(.26)        | 12.1***  | 2.3>1 |
| 전체             |                | 3.84(.33)   | 3.85(.32)   | 3.93(.33)        | .42      |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직업에 따른 비교

|                | ①<br>학생<br>(N=70) | ②<br>자영업<br>(N=231) | ③<br>영업직<br>(N=52) | ④<br>사무직<br>(N=152) | ⑤<br>생산직<br>(N=50) | ⑥<br>전문직<br>(N=22) | ⑦<br>공무원<br>(N=46) | ⑧<br>기타<br>(N=104) | F        | Tukey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
| 성역할            | 4.16(.62)         | 3.64(.48)           | 3.69(.62)          | 3.60(.51)           | 3.52(.51)          | 3.80(.69)          | 3.54(.51)          | 3.63(.54)          | 10.05*** | 1>2,3,4,5,7,8   |
| 여성활동 목적        | 4.44(.61)         | 4.21(.63)           | 4.17(.68)          | 4.23(.57)           | 4.01(.54)          | 4.46(.60)          | 4.17(.52)          | 3.92(.65)          | 5.94***  | 1,2,4,6>81>5    |
| 세부적인<br>정치적 협약 | 3.93(.46)         | 3.86(.53)           | 3.77(.62)          | 3.80(.46)           | 3.75(.45)          | 3.75(.51)          | 3.82(.52)          | 3.66(.54)          | 2.33*    | 1,2>8           |
| 차별과 경시         | 3.74(.42)         | 3.91(.57)           | 3.81(.67)          | 3.89(.50)           | 3.89(.49)          | 4.02(.54)          | 3.86(.52)          | 3.68(.61)          | 2.82**   | 2,4>8           |
| 집합적 행동         | 3.29(.40)         | 3.76(.44)           | 3.80(.52)          | 3.79(.43)           | 3.63(.46)          | 3.96(.55)          | 3.79(.43)          | 3.75(.46)          | 11.87*** | 2,3,4,5,6,7,8>1 |
| 자매애            | 3.68(.32)         | 3.88(.23)           | 3.83(.24)          | 3.86(.22)           | 3.88(.25)          | 3.82(.14)          | 3.86(.20)          | 3.84(.22)          | 6.42***  | 2,3,4,5,7,8>1   |
| 전체             | 3.87(.28)         | 3.88(.32)           | 3.85(.40)          | 3.86(.29)           | 3.78(.27)          | 3.97(.38)          | 3.84(.31)          | 3.75(.33)          | 2.68**   | 2>8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 집단은 직업에 따라 페미니즘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영업과 기타 직업군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 중 기타를 선택하여 표기하는 경우는 무직이거나 자유직일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여성 활동 목적, 세부적인 정치협약, 차별과 경시에서는 자영업 집단보다 낮은 평균치를 보이나 집합적 행동이나 자매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고 학생집단보다 높은 성향을 보여 타 직업군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페미니즘의 세부요인에서 일부 직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인 경향의 차이는 성역할과 집합적 행동, 자매애 척도에서 나타났다. 즉, 학생집단의 경우, 성역할의식만이 다른 직업 집단들에 비해 높은 페미니즘 성향을 보였고, 집합적 행동이나 자매애는 타 직업 집단들에 비해 낮은 성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집단에게 학교장면은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남녀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이나 여성들 간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수용과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이는 현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분석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수준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요인인 성역할, 차별과 경시, 집합적 행동, 자매애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활동의 목적과 세부적 정치규약에서는 소득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 차이가 나타난 성역할은 150만원 미만 집단이 그 이상 집단에 비해 더 높았고, 반대로 차별과 경시, 집합적 행동과 자매애에서는 150만원 미만 집단이 그 이상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6. 소득수준에 따른 비교

|                |                | ①                 | ②                  | ③                  | ④                 | ⑤                | F       | Tukey   |
|----------------|----------------|-------------------|--------------------|--------------------|-------------------|------------------|---------|---------|
|                |                | 150 미만<br>(N=142) | 150~250<br>(N=243) | 250~350<br>(N=229) | 350~450<br>(N=65) | 450 이상<br>(N=46) |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         |
| 성역할            | 성역할            | 3.88(.64)         | 3.66(.50)          | 3.56(.54)          | 3.62(.49)         | 3.72(.55)        | 7.69*** | 1>2,3,4 |
| 양성동등<br>사회추구   | 여성활동 목적        | 4.21(.70)         | 4.12(.62)          | 4.19(.58)          | 4.27(.61)         | 4.27(.63)        | 1.27    |         |
|                | 세부적인<br>정치적 협약 | 3.78(.53)         | 3.76(.51)          | 3.85(.51)          | 3.87(.49)         | 3.79(.52)        | 1.23    |         |
| 페미니스트<br>이데올로기 | 차별과 경시         | 3.71(.57)         | 3.87(.54)          | 3.87(.51)          | 3.88(.62)         | 4.03(.60)        | 3.73**  | 2,5>1   |
|                | 집합적 행동         | 3.56(.52)         | 3.77(.46)          | 3.74(.43)          | 3.71(.49)         | 3.93(.43)        | 7.33*** | 2,3,5>1 |
|                | 자매애            | 3.78(.30)         | 3.86(.22)          | 3.87(.23)          | 3.87(.21)         | 3.84(.24)        | 3.84**  | 2,3>1   |
| 전체             |                | 3.82(.35)         | 3.84(.31)          | 3.85(.30)          | 3.87(.33)         | 3.93(.34)        | 1.16    |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표 7과 같이 페미니즘 요인 중 자매애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으며, 집합적 행동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주관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

표 7.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과의 상관분석

|             | 성역할     | 여성활동<br>목적 | 세부적인<br>정치적 협약 | 차별과<br>경시 | 집합적<br>행동 | 자매애    | 전체<br>(페미니즘) | 심리적<br>안녕감 |
|-------------|---------|------------|----------------|-----------|-----------|--------|--------------|------------|
| 성역할         |         |            |                |           |           |        |              |            |
| 여성활동 목적     | 2.67*** |            |                |           |           |        |              |            |
|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 .14***  | .64***     |                |           |           |        |              |            |
| 차별과 경시      | .05     | .52        | .60***         |           |           |        |              |            |
| 집합적 행동      | .15***  | .32***     | .23***         | .32***    |           |        |              |            |
| 자매애         | -.19*** | .18***     | .33***         | .30***    | .16***    |        |              |            |
| 전체(페미니즘)    | .44***  | .82***     | .79***         | .75***    | .56***    | .34*** |              |            |
| 심리적안녕감      | .27***  | .33***     | .13***         | .20***    | .21***    | -.03   | .33***       |            |
| 주관적안녕감      | .10**   | .14***     | .18***         | .16***    | -.01      | .10**  | .18***       | .26***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을 나타냈다. 안녕감과 관련된 심리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격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은 여성들 간의 동지애나 신뢰에 대한 공감적 이해에 관한 자매애 항목들과 유의하지 않은 부적인 경향을 보였고, 삶에 대한 만족과 정서를 측정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집합적 행동에의 참여 필요성을 묻는 문항들과 유의하지 않은 부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전체적인 페미니즘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들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을 예측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페미니즘 성향 하위척도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가 표 8에 제시

되어 있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페미니즘 성향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보기위한 분석결과, 전체 5개 요인이 남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이 총 설명변량의 17%를 설명하고 있었다.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부요인은 여성활동의 목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성역할, 집합적 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질의 의식적인 측면을 다루고 또한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측면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페미니즘 성향의 하위 요소로서 여성활동의 목적과 성역할이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남성들의 심리적 기능에 도움이 됨을 나타낸다. 또한 페미니즘 성향의

표 8.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의 설명력

|            | 설명변수           | B    | SE  | R <sup>2</sup> | ΔR <sup>2</sup> | F        | β    |
|------------|----------------|------|-----|----------------|-----------------|----------|------|
|            | 여성활동 목적        | .20  | .03 | .11            | .11             | 90.89*** | .31  |
|            | 성 역할           | .14  | .03 | .15            | .04             | 31.59*** | .20  |
| 심리적<br>안녕감 | 집합적 행동         | .08  | .03 | .16            | .01             | 7.91**   | .09  |
|            | 세부적인<br>정치적 협약 | .07  | .03 | .17            | .01             | 8.32**   | .10  |
|            | 차별과 경시         | -.13 | .03 | .17            | .01             | 5.22*    | -.17 |
| 주관적<br>안녕감 | 세부적인<br>정치적 협약 | .11  | .05 | .03            | .03             | 24.87*** | .10  |
|            | 성역할            | .10  | .04 | .04            | .01             | 4.18*    | .11  |
|            | 집합적 행동         | -.11 | .04 | .05            | .01             | 5.60*    | 0.10 |

주. \* p<.05 \*\* p<.01 \*\*\* p<.001

다양한 하위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으로 잘 기능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이해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남성집단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3개 요인이 남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세 요인이 총 설명변량의 5%를 설명하고 있었다. 남성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위요인은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이었으며, 다음으로 성역할과 집합적 행동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이자 주관적인 통합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는 삶에 대한 객관적 요소들 각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세부적인 협약과 성역할은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고 집합적 행동은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집합적 행동이나 급진적 태도가 아닌 양성평등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각할수록 남성 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았다. 즉, 여성이 단합하여 사회적 권리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성적 평등을 위해 급진적인 사회의 재구조화 및 현재의 남녀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등주의를 넘어서는 강한 집합적 행동을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 집단의 주관적인 안녕감은 낮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페미니즘과 삶의 질에 대한 심리학적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

고자 전국단위 설문을 실시하였다. 남성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페미니즘 성향의 차이를 살펴보고 삶의 질이 페미니즘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을 김명소과 한영석 및 이현주(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해보았다.

먼저 남성들의 페미니즘 하위요인별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성들의 사회적 경력과 가정에 대한 조율과 가정에서의 남성 권위에 대한 적절한 조절’에 초점 둔 문항들인 ‘성역할’요인은 학력이 높고(대졸이상), 나이가 어리고(20대), 미혼이고 학생이고, 소득이 적을수록(150만원미만) 높게 나타났다. ‘페미니즘의 목적’요인에서는 대졸 이상의 남성들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인구학적 변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여성의 페미니즘 성향 관련 연구(김명소등, 2006)와 비교해보면, 성역할요인에서 학생과 전문직 집단에서, 페미니즘 목적에 해당하는 ‘여성활동 목적’과 ‘세부적인 정치협약’요인들에서 20대 미혼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던 높은 페미니즘 성향이 본 연구의 인구특성별 남성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사회적인 경험이 적거나 속한 조직이 성적 평등을 보장할 때, 여성 성역할에 대한 구체적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남성들의 양성 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에는 학교에서의 경험이나 교육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차별과 경시, 집합적 행동과 자매애와 관련하여서는 ‘차별과 경시’와 ‘집합적 행동’은 기혼이거나 3,40대이거나 소득이 적을 때(150만원 미만) 더 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애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고졸이하이고 수입이 중간정도(150만-350만원)에 해당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소 등의 연구(2006)에서는 ‘차별과 경시’, ‘집합적 행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패턴과 두 가지 요인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을 사회정체성 관련 연구(김금미, 한영석, 2002)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여성들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의 경쟁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지각할수록 남녀평등을 위한 집단행동 의도가 높다고 했다. 남성들에게서도 차별과 경시, 집합적 행동이라는 두요인 간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6가지 세부 척도별 차이를 살펴봤을 때, ‘자매애’를 제외한 다섯 가지 모두에서 여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성역할( $t=-8.52, p<.0001$ ), 여성활동 목적( $t=-7.19, p<.0001$ ), 세부적인 정치협약( $t=-6.85, p<.0001$ ), 차별과 경시( $t=-7.36, p<.0001$ )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의 집합적 여성 정체성과 관련된 여성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인 ‘자매애’요인은 남녀 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t=-1.07, ns$ ) 유일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태도나 의식이 남성들보다 높음을 나타내며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남성들은 여성공동체 의식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남성들의 경우 집단자존감이 남녀평등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밝힌 홍기원과 김명소 및 한영석 등(2003)의 연구와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고 집단에 영향을 받고 집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

데 본 연구에서 남성들이 보인 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동의 역시 남녀평등의식 수준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서구의 연구자들(Riley, 2001; Edley & Witherell, 2001)이 언급해온 남성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여권주의자, 여성해방론자)에 대해 가져온 이중적인 태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다소 회의적일 수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대로 남성들은 페미니즘의 가치를 수용하고 자신이 페미니즘에 호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권익을 주창하고 나서서 행동하는 여성들에게는 비판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많은 상관을 보여 김명소등(2006)의 연구에서의 여성자료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페미니즘 성향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 요소 중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성격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성자료들에서는 주관적 안녕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주관적 안녕과도 페미니즘 성향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세부적인 협약과 성역할은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고 집합적 행동은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집합적 행동이나 급진적 태도보다는 제도권 하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각할수록 남성들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와 같은 남성들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들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고 이를 여성자료와 비교해 봄으로써 남성들이 가진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과 차별화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들의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남성들이 페미니즘의 방관자나 피해자가 아님을 경험적 자료들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며 성뿐 아니라 어떠한 명분으로든 소수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다. 이에 동조하고 동참하는데 성이나 젠더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 중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척도를 선정하여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연구의 내용이 제약된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다양한 이해를 다루고자 하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여러 가지 페미니즘 이론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관련된 연구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집을 시도하였으나 결혼관계, 직업군 등의 일부 세부 범주에서 각 집단별로 균등하지 않아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요 세부 범주별로 표집인원을 맞추는 것과 각 인구통계학적 변

인별로 의미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나 직업,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들을 검증하는 내용이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심리적 변인들과 페미니즘과의 상관에 대한 연구들을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양적인 자료나 분석의 결과가 가질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매애’라는 요인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적인 자료만으로 연구가 진행될 때 연구자가 결과를 해석할 때 주요한 차이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질적인 자료들이 함께 분석에 활용되는 연구설계를 통해 이러한 오류가능성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여성연구소 (2003). 새여성학강의, 동녘출판사.
- 김금미, 한영석 (2002).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 1-15.
- 김금미, 한영석 (2003).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연구, 제64호, 5-44.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이현주, 한영석 (2006). 한국 여성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별 차이 및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83-105.
- 김명소, 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양희, 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3-44.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973-1002.
- 이명신, 이훈구(1997). 주관적 삶의 질에 나타난 성차의 원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89-101.
- 이정희 (2004).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제3세계 페미니즘까지 (From Liberal Feminism to Third Feminism),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19, 192-220
-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자존심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19-33.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Andrews, M. (2006). Breaking down Barriers: Feminism, Politics and Psychology, *Feminism and Psychology*, 16(1), 13-17.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12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 Emmons, R.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Edley, N., & Wetherell, M. (2001). Jekyll and Hyde; Men's Constructions of Feminism and Feminists, *Feminism and Psychology*, 11(4), 439-457.
- Groenhout, R. E. (2002). Essentialist Challenges to Liberal Feminism.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28.
- Hooks, B. (1984).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 Cambridge, MA: South End Press.
- Morgan, B. L. (1996). Putting the feminism into feminism scales: Introduction of a 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Scale (LFAIS). *Sex Roles*, 34, 359-390.
- Riley, S. (2001). Maintaining Power: Male Constructions of 'Feminists' and 'Feminist Values', *Feminism and Psychology*, 11(1), 55-7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zalai, A. (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equality of life. In Szalai & F.M.Andrews(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7-12).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Schmitte, P. S., & Ryff, D. C. (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What is the conn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Taifel, H. &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Austin and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7-24).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1차 원고접수: 2008. 03. 03

심사통과접수: 2008. 03. 10

최종원고접수: 2008. 03. 22

## **Explorations on the Feminism of Korean Men on the bases of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and its Effect on Well-being**

**Myoung So Kim**

Hoseo University

**Eun Jin Lee**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1) the liberal feminism of Korean men on the bases of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and (2) the its impact on their well-being. The 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Scale as well as two quality of life scales( Subjective Well-being Sca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were administered to a nationwide sample of 727 Korean men.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differed according to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such as individuals marriage status, occupation,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The levels of gender roles, and global goals were higher for those men who were better educated, younger, and professionals or students. On the contrary, the levels of discrimination and subordination as well as collective action were higher for those who were older and had higher income.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most of liberal feministic attitude and ideology factors affected the Korean men's perception on their quality of life. Specifically, gender role, global goals, specific political agendas, and discrimination and subordination positively affected bo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collective actions positively affect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sisterhood positively affected the subjective well-being. Theses results we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the study on the feminism of korean women and its effects on well-being,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of this area were discussed.

*Key words : Liberal Feminism,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Well-being*